

산학관 혁신 플랫폼 구축 '의기투합'

전북대-전주시-헬스케어 전문기업 '손 맞잡아' 연구개발 등 협력... 전북대에 R&D센터 설립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국형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웰니스 라이프 헬스케어 혁신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북대와 전주시, 그리고 (주)인트로메딕 등 코스피 상장사 4개 기업은 9일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회의실에서 웰니스 라이프 헬스케어 혁신 플랫폼 구축과 R&D 투자 조성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동원 총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 및 융합기술사업화 확산지원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 그리고 기업에서 (주)인트로메딕 권혁진 대표, (주)메디엔리서치 이서형 대표(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을 통해 신산업 구축을 위한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기업 중심의 민간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유망기업 유치 등에 협력하고, 전북대 내에 관련 R&D센터 설립도 진행한다.

전북대는 임상시험센터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기술과 유망 창업기업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에 나서고, 석·박사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는 헬스케어 분야 유망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고용 창출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 유치 발굴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R&D 센터설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번엔 참여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문 기업은 전북대와 전주시가 추진할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조합을 만들 계획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민·관·학이 협력·상생해 지역 디지털 뉴딜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오늘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바이오헬스케어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술특례 중심의 상장기업으로, 대학의 우수 연구 인프라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뉴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지역 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을 통해 4차 산업 기반의 융합기술이 지역 경제성장 동력이 되고, 산·학·관 연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와 전주시, 그리고 (주)인트로메딕 등 코스피 상장사 4개 기업은 9일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회의실에서 웰니스 라이프 헬스케어 혁신플랫폼 구축과 R&D 투자 조성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완주교육한마당을 운영했다.

전북하이텍고 학생들 "오늘은 내가 바리스타"

완주교육한마당 성황... 진로직업·교과 체험 등 진행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완주교육한마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완주교육한마당에서는 청소년의 자율동아리 발표, 진로직업 체험, 교과 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진로직업체험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부스 중 하나는 전북하이텍고 특수학급 학생들과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한 office-in-us (바리스타-서비스 직무) 부스였다.

평소 진로직업교육으로 학급에서 바리스타에 대해 틈틈이 알고 있던 전북하이텍고 학생들이 체험장을 찾은 친구들에게 핸드드립을 통해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을 시연하고, 체험을 진행했다. 하이텍고 학생들은 맛과 향이 좋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원두의 양, 물의 온도, 추출 시간 등을 설명했다.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카페테리아에 설치된 커피머신을 통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체험장을 찾은 학생들은 자신들이 추출한 커피의 맛을 보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친구들을 함께 인솔해 주신 선생님께 커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서비스 직무(바리스타)를 진행한 전북하이텍고 학생은 "두 시간 동안 핸드드립 체험을 진행해 다리가 너무 아프긴 하지만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익힌 것을 전해주는 것이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완주중학교 한 학생 "처음 해보는 에스프레소 추출 등 커피 추출 방법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으며,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작은 학교 아이들 '작가랑 도란도란 책소풍'

정읍 입암초·고창 심원초서

작은 학교 아이들이 작가와 함께 책소풍을 떠난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일과 10일 각각 정읍 입암초와 고창 심원초에서 작가와 어린이들이 눈을 맞추고 문학적인 교감을 나누는 '작가랑 도란도란 책소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가랑 도란도란 책소풍'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복지 사업으로 문화소외지역의 초등학교로 동화 작가들이 직접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즐거움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입암초 전교생 40명, 심원초 3~6학년 44명이 함께 하며 '까불지 마!'의 강무홍 작가, '무에티 합이비지와 태권 손자의 김리라 작

가, 나비가 된 소녀들의 정한희 작가, 배 맞으러 간 아빠'의 정혜원 작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아이들과 만난다. 주요 프로그램은 ▲텐트 안에서 작가와 아이들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곤소곤 이야기 텐트' ▲어린이들이 작가의 작품을 낭독하는 '낭랑한 낭독회' ▲작가에게 글쓰기 교육을 받는 '나도 작가' 행사 등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가와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농어촌 학교 어린이들이 밀도 있는 예술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문학적 재능을 발굴하고 작가에게 직접 지도를 받으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해마다 소규모 농어촌 지역 두 곳을 선정해 '작가랑

도란도란 책소풍'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완주와 입암에서 진행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pre-JOB 채용제안서 경진대회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6일 도내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제3회 pre-JOB 채용제안서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 진행되는 pre-JOB 채용제안서 경진대회는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필요한 성장 전략과 자신들의 직무 강점을 어필함으로써 채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전 정신 및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면접을 통해 도내 청년 및 전주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16명, 총 47명이 선발됐다. 참가자들은 약 2개월 동안 채용제안서 구성을 위한 사전교육을 받고 도내 일자리 전문가와 기업 멘토와 함께 채용제안서를 완성시켰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상(상금 150만원) 1팀, 최우수상(상금 100만원) 2팀, 우수상(상금 70만원) 3팀, 장려상(상금 50만원) 4팀, 참여상(상금 20만원) 6팀이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김나고맛갈나케팅전장욱 학생은 "긴 대회 기간 동안 기업 분석부터 발표 준비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좋은 성과를 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홍성덕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재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준비와 더불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한목청'

생활체육 국제대회... 경기주관 종목단체 관계자 간담회

전세계 70개국 1만3,000여명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국제대회가 도내 14개 시·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에 따른 경기주관 종목단체 관계자외의 간담회가 9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작년 10월 스위스에서 개최도시가 선정된 이후 경기장 14개 시·군 배정, 종목별 경기요강 수립, 참가등록비 책정, 홍보체계 마련 등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를 주관한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 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강

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를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위치에 따른 경기주관 종목단체 관계자외의 간담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로 인해 전북도를 찾는 선수 및 관광객의 수가 28,000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잠재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